

테슬라 다이너의 출현



연운열의
푸드톡

전세계적인 화제의 인물 일론 머스크가 2025년 7월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인근 산타모니카에 다이닝 식당을 오픈했다. 다이닝 이름은 '테슬라 다이너(Tesla Diner)'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다이너'는 단순히 전기차 충전소에 레스토랑을 결합한 부대사업으로 그치지 않는다. 머스크가 트윗을 통해 예고했던 미래형 충전소 개념의 완성체이자, 기술과 인간의 경험이 접점에서 만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다.

테슬라 다이너가 할리우드와 산타모니카라는 상징적인 장소를 선택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곳은 단순히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 아니라 글로벌 문화와 미디어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테슬라 다이너의 핵심 전략 중 하나는 고객의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에 있다. 기존 외식업체가 고객의 대기 시간을 '줄여야 할 비용'이나 '불편함'으로 인식했다면 테슬라는 이를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과 소비 시간'으로 재정의했다. 전기차 충전에 필요한 30~40분은 고객

이 해당 공간에 머물 수밖에 없는 '확보된 체류 시간'이다. 머스크는 이 '필수 불가결한 시간'을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이 아닌 브랜드를 깊이 있게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가치 있는 시간으로 전환했다.

테슬라 다이너가 여타 프랜차이즈 식당과 차별화되는 점은 바로 방대한 데이터의 활용이다. 테슬라는 이미 전 세계 400만 대 이상의 차량을 통해 고객이 선호하는 음악, 자주 방문하는 장소, 차량 내부의 설정 값 등 상세한 사용자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의 과거 주문 패턴과 선호도를 분석해 차량 내부 디스플레이를 통해 맞춤형 메뉴를 제안한다. 단순히 식당에서의 경험에 그치지 않고, 차량과 인간의 생활 패턴 전체를 연결하는 통합적인 경험을 설계한다.

테슬라다이너의 진정한 혁신은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의 완전한 통합에서 나온다. 차량이 다이너 반경 15분 이내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주문 알림이 발송되고, 운전자는 차량 내 앱으로 결제까지 완료할 수 있다. 고객이 도착하자마자 준비된 음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완벽한 시간 최적화 시스템이다.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팝콘 서빙 등에 참여하며 미래 지향적인 브

랜드 이미지를 시각화한다. 단순히 화제성을 노리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외식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것이다.

테슬라 다이너의 출현은 국내 외식업체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듯하다. 첫째, 공간과 시간을 재설계 해라. 대기 시간을 줄이는 데 급급하기보다, 그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 둘째, 소규모 생태계를 구축해라. 단일 매장의 효율성을 넘어 O2O 플랫폼, 유통망, 콘텐츠 제공자와의 제휴를 통해 자신만의 생태계를 구축해라. 셋째, 브랜드 철학을 공간화 해라. 단순한 인테리어를 넘어서 브랜드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한 낙관'과 같은 철학이 담긴 총체적인 공간디자인이 필요하다. 넷째, 보여 주기가 아닌 실질적인 ESG 경영을 실천해라. 친환경 운영을 마케팅 도구가 아닌 사업 모델의 핵심으로 삼아 환경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다섯째, 경계를 파괴해라. 경쟁상대는 옆집 식당이 아니라 고객의 시간과 주의를 끄는 모든 플랫폼이다.

한국 외식 산업 역시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읽고 기술과 인간의 따뜻한 경험이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식품기술사, 칼럼니스트

사다리 걷어찬 AI, 청년의 자리는 없다



김지수첩
김서현
(IT부)

인공지능(AI)이 세상을 바꾼다는 장밋빛 전망 뒤에 가려진 서늘한 지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단순히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공포를 넘어, 이제는 '누구의 자리가 사라지는가'에 대한 잔인한 답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보고서는 그 결과가 명확하다. 지난 3년간 청년층 일자리가 21만 개 넘게 증발하는 동안, 50대 고용은 오히려 20만 개 이상 늘었다. 신기하게도 이 격차는 AI 노출도가 높은 금융, 프로그래밍, 전문 서비스 업종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기술이 발전하면 모두가 공평하게 위협받는 게 아니라, 경험 없는 신입부터 정글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소리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연공평형적 기술 변화'라는 고상한 용어를 쓴다. AI가 도입되는 초기 단계에서는 숙련된 선배들의 노하우와 AI를 결합해 효율을 뽑아내고, 그 과정에서 잡무를 배우며 성장해야 할 신입의 자리는 아예 없애버린다는 뜻이다.

전문직의 상징인 공인회계사(CPA)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어렵게 시험에 합격한 1200명 중 고작 300여 명이 실습지를 찾았다는 통계는 충격적이다. 과거 신입 회계사들이 도맡던 데이터 검토와 기초 서류 작업을 AI가 가로채면서, 업계는 더 이상 '키워 써야 할' 신입을 반기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1980년대 전화교환원이 사라진 사례를 들며 이를 기술 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도태라고 치부한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전화교환원이라는 특정 직무가 사라진 것과, 전산 업무에 걸쳐 '진입로' 자체가 봉쇄되는 것

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사다리 아래쪽 칸이 통째로 잘려 나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여전히 "그들도 결국 제 갈 길을 찾을 것"이라며 태평한 소리를 한다. 이는 기득권을 쥔 세대가 던지는 무책임한 낙관론에 불과하다.

결국 AI는 기업에는 효율을, 기성세대에게는 업무 경감을 선물했지만, 청년들에게는 노동 시장으로 들어가는 입장권조차 뺏아갔다. 기술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속도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속도를 앞지르고, 그 피해가 오로지 사회 초년생에게 집중되는 구조라면 이 건 진보가 아니라 재앙에 가깝다. '경력직 같은 신입'을 요구하던 시장이 이제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신입'을 내놓으라며 청년을 벼랑 끝으로 밀어 넣고 있다. 사다리가 없어진 세상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우리는 그 잔인한 질문에 답해야 할 때다.

/seoh@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17일 (음 1월 29일) 표준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아주 좋은 일이 벌어지는 하루입니다. 60년생 당신이 만들어내는 결과에 모두가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72년생 강한 책임감이 요구되는 하루입니다. 84년생 신중히 행동하면서 집중력을 높이십시오.



49년생 틈틈이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 날입니다. 61년생 사소하지만 신경 쓰이는 다른 일이 생깁니다. 73년생 저녁에 잡는 약속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85년생 기회가 된다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50년생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손해를 당할 것입니다. 62년생 사비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74년생 작은 일이 크게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86년생 뜻한 바를 도모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51년생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지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63년생 귀인을 만나 재물을 얻습니다. 75년생 주변 사람들 때문에 벅찬 하루가 됩니다. 87년생 바라던 것을 마침내 얻게 될 것입니다.



52년생 만사형통하는 하루입니다. 64년생 남과 다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76년생 이성운이 좋 불리하나 너무 신경 쓸 일은 아닙니다. 88년생 뒷사람에게 칭찬 또는 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3년생 자신감이 넘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65년생 일의 능률이 상당히 올라갈 것입니다. 77년생 정신적인 수양이 필요한 하루입니다. 89년생 생각도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54년생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위험에 빠질수도 있습니다. 66년생 깨끗한 마음으로 자초하는 것이 좋습니다. 78년생 쓸데없는 것에 눈을 돌리기가 쉽습니다. 90년생 생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55년생 뜻하지 않은 지출이 생깁니다. 67년생 선물을 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79년생 건강 정보를 접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91년생 공부에 대한 집중력이 생겨 시험운이 따릅니다.



56년생 너무 자만해서는 안됩니다. 68년생 아랫사람들을 잘 다스려야 일이 잘 풀리는 법입니다. 80년생 오래 전부터 기다리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92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57년생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 69년생 너무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움직이세요. 81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93년생 친구들과 재미있는 영화를 보세요.



58년생 귀인이 오니 그냥 보내지 마세요. 70년생 부모에게 호도하는 것은 자식의 도리입니다. 82년생 운동 부족으로 건강이 악화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94년생 꼬임에 쉽게 넘어가지 마세요.



59년생 지금은 더욱 열심히 해야 할 때입니다. 71년생 게으름 피우면 귀하만 손실을 보게 됩니다. 83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아 일을 추진하도록 하세요. 95년생 추억의 친구를 찾아가보세요.



김상회의四季 자식을 잃은 듯

세상에는 수많은 형태의 사랑이 존재한다. 친구 사이의 우정, 연인 간의 그리움 그리고 반려동물과 나누는 순수한 교감도 사랑의 한 형태이다. 그중에서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사람에게 가장 고귀하고도 본능적인 사랑이다. 그렇기에 자식이라는 소중한 존재를 잃는다는 것은 한 사람의 삶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다. 참척이라는 말이 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비극을 일컫는 말이다. 자식을 잃은 사람에게서는 어떠한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평생을 함께 가는 아픔이기에 슬픔을 벗어나게 하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지켜봐 주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행동이 더 큰 위로가 된다. 최근에는 가족처럼 여기던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펫로스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수년 혹은 십수 년을 함께하며 조건 없는 사랑을 주고받은 반려동물을 잃는 것 역시 커다란 상실감을 준다. 가족으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플 때 걱정하며, 떠나보낼 때 눈물을 흘린다. 반려동물을 잃는 일은 분명 큰 상실이다. 집 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익숙한 발소리가 사라진 자리는 오래도록 공허하다. 어떤 사람에게 그 슬픔은 자식을 잃은 아픔이다. 지인 중 한 사람은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일 년 넘도록 깊은 우울감과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도 했다. 필자의 월광사에서는 살아주는 힘이 되는 반려동물을 잃고 펫로스 증후군을 겪는 그 뒤에 비슷한 아픔에 함께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올리고 있다. 자식을 잃거나 반려동물을 잃은 아픔은 삶을 예전과 다르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나 사람은 슬픔을 안고도 살아가는 힘과 용기 또한 품고 있다. 그 아픔이 열린 그리움으로 바뀌고 아픔을 딛고 평화로운 시간이 되기를.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2	7		8	1				
6			1	3				9
		4						5
4			8		7			
8								6
	7			9				8
7				5				
1	6		7					3
		5	6					2
								7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월드피어를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3						9
			3					
			7	1	2			5
		2	4	9	8	6		
		8					2	
	7	4	8	3	9			
7			9	3	6			
					7			
3						5		4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87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76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